

신차·중고차 구입은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진행중 (-8월 31일까지)
 제주은행 문의: 1588-0079(7번)



한리일보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타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064)745-8884

“4·3특별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도청 조직·인력 비대화 ‘우려’

정기국회 끝나면 선거모드... 연내 통과 ‘승부수’ 불발시 文 대통령 임기내 처리 가능성 현저 하락
제주출신 국회의원·도·평화재단·유족 등 총력전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의 마지막 선전으로 치목되면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도내·외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4일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등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4·3수훈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명예회복,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4·3과 관련 현안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한 핵심이 모두 담겨있다.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앞으로 6개월 내에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4·3특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월에 마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의 영향으로 ‘선거모드’에 돌입, 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지만, 총선 후유증 등으로 재개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국회 내 현안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어 내년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현실적으로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선전인 셈이다. 제주도내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

대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과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3일에도 4·3유족회와 4·3평화재단,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을 만나 강력 촉구했다. 4·3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행동을 구성했으며, 구성원을 도내외 자생단체로 확대해 전국적인 목소리를 모으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SNS를 통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도의회 행자위, 4일 정월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당초 증원 요구한 102명서 29명 감원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 올 하반기 정기인사와 맞물려 부분적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합동으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증원 규모는 당초 102명에서 29명이 감원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4일 제375회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주도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 6005명에서 102명 증원한 610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행자위는 특별자치행정국 명칭을 존치하고, 제주도가 요구한 증원 규모 102명 중 29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의결 후 강성균 위원장은 진통 속 힘겹게 의원들간 수정 의결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 1월에 수립한 중기(2019-2023년) 기본인력운용계획(올해 219명 반영)에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

만, 새로 생긴 업무에 대한 인력 증원 필요성이 고려됐음을 설명했다. 앞서 행자위는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청 조직 및 인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했으며, 올해 초에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70명을 증원한 바 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계획(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만들었느냐. 공직사회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도 “굳이 지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크게 손볼 때 해도 되는데, 차고지증명제·커뮤니티케어를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부분까지 증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 축소 제안은 심각하게 검토해달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거들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밤바다 집어등과 어우러진 제주시 야경 7월이면 제주의 밤바다는 어선들의 집어등으로 불야성을 이룬다. 도시의 불빛과 함께 밤바다에서 조업중인 갈치·한치어선의 집어등이 어우러지며 장관을 연출한다. 제주 밤바다에서의 갈치·한치어선은 6월 초순부터 시작, 9월 하순까지 이어지며 낚는 매력과 함께 또다른 볼거리를 선물한다. 사진=4일 저녁 제주시 산록도로에서 강희만기자

지속가능 제주발전방안 마련 본격화

행자위, 어제 정책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본격화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

장 강성균)는 4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정책체계 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의회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서울시 등 타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관련 정책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포괄적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호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며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은 UN의 지속가능발

전목표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홍창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 도시 특성이 반영된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은지기자

제주소비자권익증진협 발족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4일 제주자치도·도내 소비자단체와 함께 도청에서 제주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발족식을 열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부인회 제주지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YWCA 등 도내 6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제주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결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최신 소비자 이슈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 공유를 통해 지역

소비자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Jeju Volcanic Island & Lava Tub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07

2019 세계자연유산제주 거문오름국제트레킹 개최를 축하합니다.

제12회 2019 세계자연유산제주 거문오름

Trekking Festival 국제트레킹!

문의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 사무국(한리일보사)
 T.064)750-2523



개막식 : 7.20.(토) 09:00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특설무대

| 기간 | 2019.7.20(토) ~ 7.28(일)

| 장소 | 세계자연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거문오름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위원장 강만생 한리일보사 고문)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07.21(일)

- 09:30 난타공연
- 10:00 라인댄스
- 10:30 투링브라더스
- 11:00 밴드 데모

07.20(토)

- 07:00 기원세
- 08:00 풍물 갈놀이 공연
- 08:25 거문오름 풍물단 공연
- 08:40 가수 가수지 특별공연
- 09:00 개막식
- 09:30 DPMX 공연

07.27(토)

- 10:30 선인봉교 풍물패 공연
- 11:00 어반뮤

07.28(일)

- 10:00 라인댄스
- 10:30 시크릿로드
- 11:00 재즈듀오 제스민

한라기획 종합이벤트

(주)카리반 제주총판, (주)대원레저 제주총판
 몽골천막, 자바라, 각종 행사천막 제작·판매·대여
 각종 행사, 단체식사 주문환영(복합지바베큐전문)

대표 김 봉 군

- 사무실 : 744-6688
- FAX : 749-8668
- H · P : 010-2623-6688
- jejuhanla@daum.net